

교과서 완전 학습,
학교 시험 완벽 대비

자습서

고등학교 화법과 언어



서혁 교과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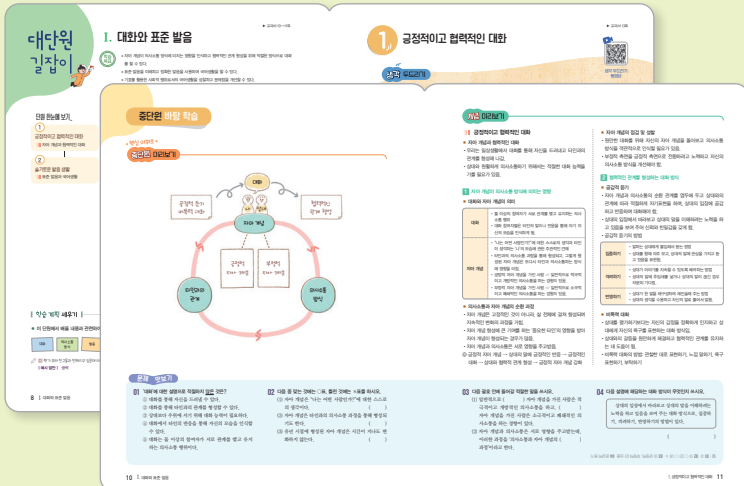
교과서의 꼼꼼한 분석 및 활동 풀이

—
핵심 정리로 개념 잡고, 확인
문제로 실력 완성

—
다양한 단계별 문제로 탄탄한
내신 대비

이 책의 구성과 특징

교과서 완벽 분석 & 핵심 정리



[대단원 길잡이]

대단원의 구성을 한눈에 살펴보고, 학습 목표와 길잡이 글을 통해 대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확인한 후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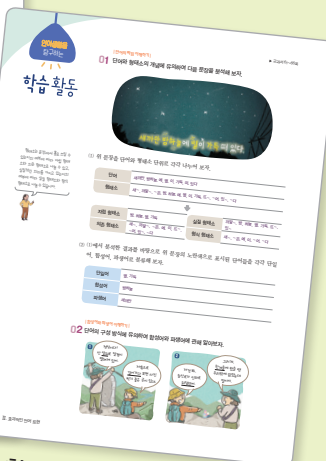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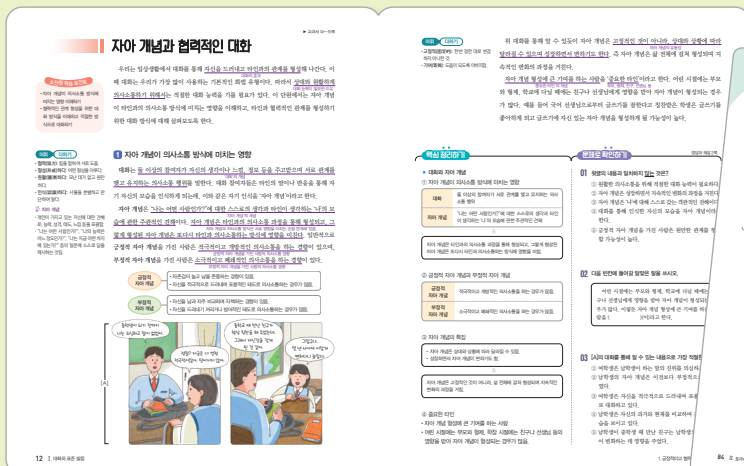
[중단원 도입]

'생각 두드리기'를 통해 중단원 학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중단원 바탕 학습]

'중단원 미리보기'와 '개념 미리보기'를 통해 중단원에서 익혀야 할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 맞보기'를 풀어 보며 이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단원 학습]



본문 학습

교과서 본문 내용을 꼼꼼히 공부한 후 '핵심 정리하기'와 '문제로 확인하기'를 통해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활동

예시 답안을 참고하여 학습 활동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 보면서 본문 학습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차례



대화와 표준 발음 ————— 6

1.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대화 ————— 9

■ 자아 개념과 협력적인 대화 ————— 12

2. 슬기로운 발음 생활 ————— 31

■ 표준 발음과 국어생활 ————— 34

[통합 활동] 나의 꿈에 다가서는 대화하기 ————— 61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 64



효과적인 언어 표현 ————— 68

1. 단어와 문장의 활용 ————— 71

(1) 단어의 짜임과 의미 관계 ————— 74

(2) 품사와 문장 구조 ————— 94

2.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말하기 ————— 121

(1) 상황에 맞게 발표하기 ————— 124

(2)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연설하기 ————— 138

[통합 활동] 우리 지역의 명물 소개하기 ————— 156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 159



담화와 협력적 문제 해결 ————— 164

1. 담화의 표현과 구성 ————— 167

(1) 어휘와 문법 요소의 기능 ————— 170

(2) 짜임새 있는 담화의 구성 ————— 190

2.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 209

(1) 토의로 문제 해결하기 ————— 212

(2) 반대 신문하며 토론하기 ————— 230

(3) 서로 만족하는 협상하기 ————— 248

[통합 활동] 우리 학급 심포지엄 열기 ————— 272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 276



언어와 우리의 삶 ————— 280

1. 언어와 삶의 흔적 ————— 283

(1) 언어와 삶 ————— 286

(2) 시대에 따른 국어의 변화 ————— 298

2. 언어의 다양한 모습 ————— 319

■ 언어의 다양성과 공공성 ————— 322



[통합 활동] 한 해 동안의 학교생활을 뉴스로 제작하기 ————— 338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 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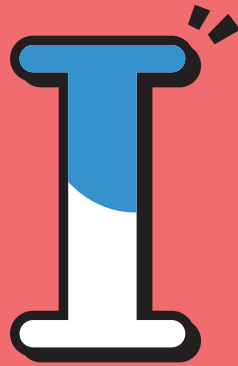


정답과 해설

대단원 한눈에 보기

중단원	소단원	학습 요소
1.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대화	 자아 개념과 협력적인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 개념이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대화 방식을 이해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대화하기
2. 즐거운 발음 생활	 표준 발음과 국어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발음법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발음하기 • 사회적 행위로서의 국어생활을 성찰하고 문제점 개선하기





대화와 표준 발음

1.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대화
2. 슬기로운 발음 생활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대인 관계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

대단원 길잡이



학습 목표

- 자아 개념이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
- 표준 발음을 이해하고 정확한 발음을 사용하여 국어생활을 할 수 있다.
- 기호를 활용한 사회적 행위로서의 국어생활을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단원 한눈에 보기

1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대화

자아 개념과 협력적인 대화

2

슬기로운 발음 생활

표준 발음과 국어생활



우리는 말과 기호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로서의 국어생활을 한다. 이 단원에 다른 사람과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하고 상호 작용함. 서는 자아 개념과 관계 형성에 적절한 대화 방법을 알아보고, 국어의 표준 발음을 익히 대화를 통한 자아 개념 형성과 대인 관계 형성 표준 발음법 규정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발음 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국어생활을 성찰해 보고, 더 나은 국어생활을 하기 위해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 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자.

학습 계획 세우기

-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써 보자.

대화	의사소통 방식	발음	음운 변동	국어생활 성찰
----	------------	----	-------	------------

예 학기 초라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 몰라 고민했어.

| 예시 답안 | 생략

- 이 단원에서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써 보자.

예 우리가 평소에 자주 틀리는 발음이 무엇인지 알고 정확한 발음을 익히고 싶다.

| 예시 답안 | 생략

1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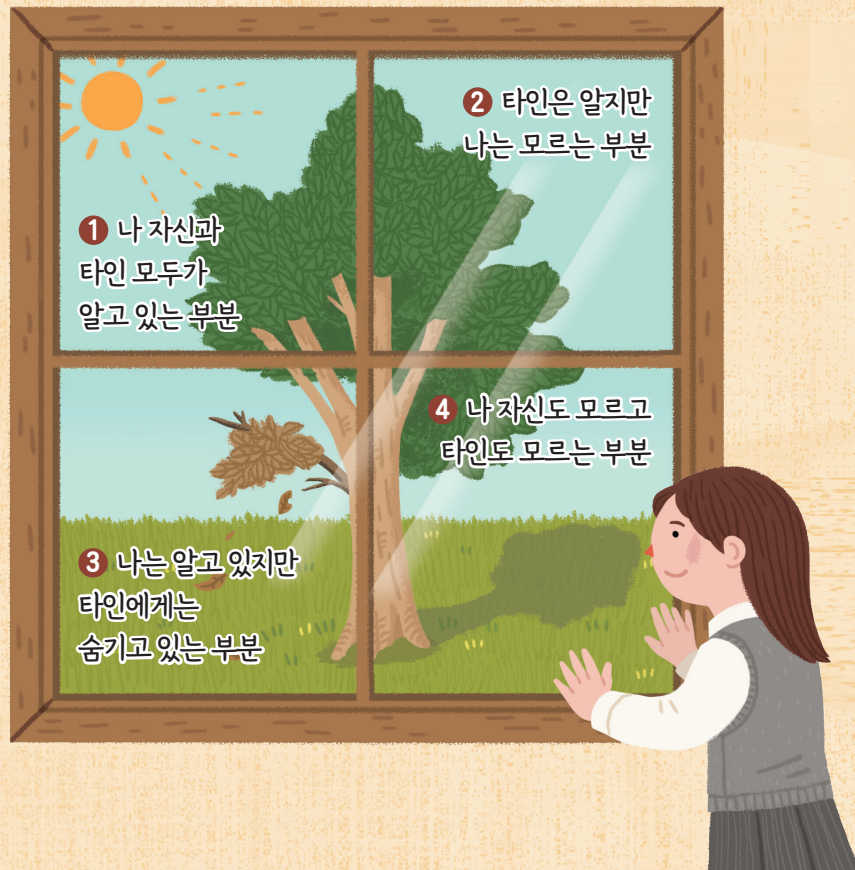


생각 두드리기 동영상

생각 두드리기

“자아 개념은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자신에 대한 나의 인식과 나에 대한 타인의 인식을 떠올려 보고, 아래 ①~④의 창에 비추어 나 자신을 들여다보자.



| 예시 답안 | 나는 활동적인 성격이고 친구들에게 나의 생각이나 내가 겪었던 일들을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친구들도 나에게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많고 나를 활발한 친구라고 여기는 것 같다. 그림의 창 중에서는 ①의 창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장 넓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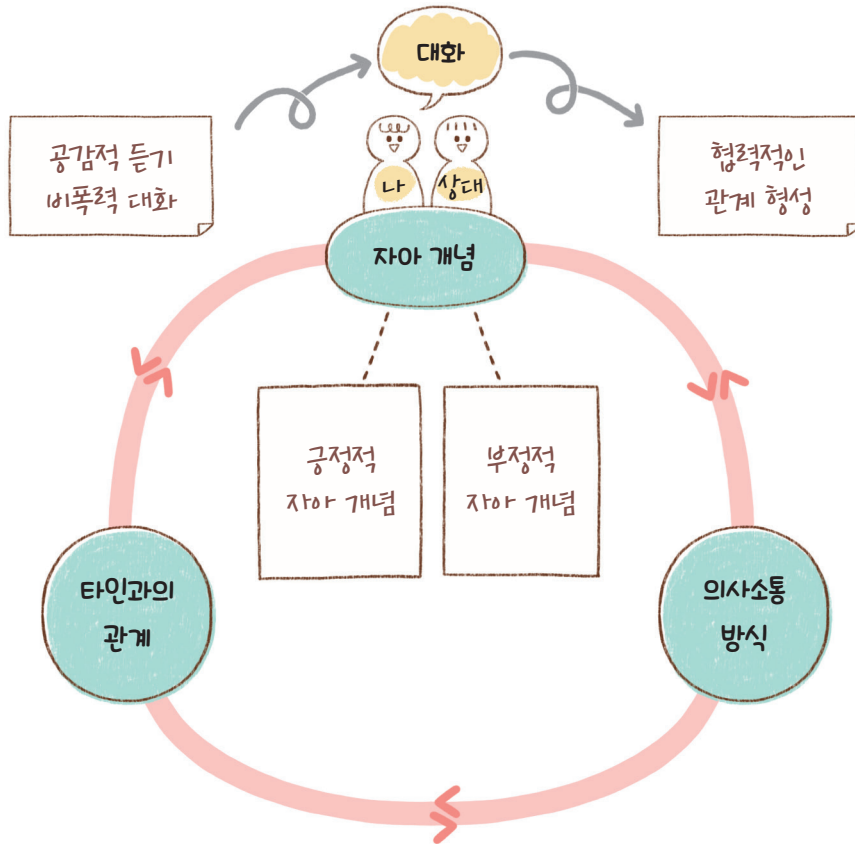
● ‘나’에 대한 인식이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자.

| 예시 답안 |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인식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중단원 바탕 학습

• 핵심 어휘로 •

중단원 미리보기



문제 맛보기

01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③ 상대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대화 능력이 필요하다.
- ④ 대화에서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다.
- ⑤ 대화는 둘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02 다음 중 맞는 것에는 ○표, 틀린 것에는 ×표를 하시오.

- (1) 자아 개념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이다. ()
- (2)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형성되기도 한다. ()
- (3) 유년 시절에 형성된 자아 개념은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다. ()

■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대화

■ 자아 개념과 협력적인 대화

-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감.
- 상대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음.

1 자아 개념이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

■ 대화와 자아 개념의 의미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의사소통 행위 • 대화 참여자들은 타인의 말이나 반응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됨.
자아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 •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자아 개념은 또다시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침. •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 ⇨ 일반적으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음. •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 ⇨ 일반적으로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음.

■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의 순환 과정

- 자아 개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 형성되며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침.
- 자아 개념 형성에 큰 기여를 하는 '중요한 타인'의 영향을 받아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음.
-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

예 긍정적 자아 개념 → 상대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 → 긍정적인 대화 → 상대와 협력적 관계 형성 → 긍정적 자아 개념 강화

■ 자아 개념의 점검 및 성찰

- 원만한 대화를 위해 자신의 자아 개념을 돌아보고 의사소통 방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부정적 측면을 긍정적 측면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개선해야 함.

2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대화 방식

■ 공감적 듣기

-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의 순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적절하게 자기표현을 하며, 상대의 입장에 공감하고 반응하며 대화해야 함.
-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 신뢰와 친밀감을 갖게 함.
- 공감적 듣기의 방법

집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는 상대방에게 몰입해서 듣는 방법 • 상대를 향해 마주 보고, 상대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음을 표현함.
격려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가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법 • 상대의 말에 추임새를 넣거나 상대의 말이 끊긴 경우 차분히 기다림.
반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가 한 말을 재구성하여 재진술해 주는 방법 •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고 자신의 말로 풀어써 말함.

■ 비폭력 대화

- 상대를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대화 방식임.
- 상대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됨.
- 비폭력 대화의 방법: 관찰한 대로 표현하기, 느낌 말하기, 욕구 표현하기, 부탁하기

03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 (1) 일반적으로 ()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다.
- (2)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러한 과정을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의 () 과정'이라고 한다.

0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대화 방식이 무엇인지 쓰시오.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화 방식으로, 집중하기, 격려하기, 반영하기의 방법이 있다.

()

자아 개념과 협력적인 대화

소단원 학습 포인트

- 자아 개념이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대화 방식을 이해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대화하기

어휘 더하기

- **협력(協力)**: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
- **형성(形成)하다**: 어떤 형상을 이루다.
- **원활(圓滑)하다**: 모난 데가 없고 원만하다.
- **인식(認識)하다**: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다.

자아 개념

-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견해로, 능력, 성격, 태도, 느낌 등을 포괄함.
-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등의 질문에 스스로 답을 제시하는 것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이 때 대화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화법 유형이다. 따라서 상대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이 단원에서는 자아 개념이 타인과의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타인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대화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자아 개념이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

대화는 둘 이상의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정보 등을 주고받으며 서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말한다. 대화 참여자들은 타인의 말이나 반응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자기 인식을 ‘자아 개념’이라고 한다.

자아 개념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이다.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자아 개념은 또다시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다.

긍정적 자아 개념

- 자존감이 높고 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음.
-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포용적인 태도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음.

부정적 자아 개념

- 자신을 남과 자주 비교하며 자책하는 경향이 있음.
- 자신을 드러내기 꺼리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음.



어휘 더하기

- 고정적(固定的): 한번 정한 대로 변경하지 아니한 것.
- 기여(寄與):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

위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아 개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장하면서 변하기도 한다. 즉 자아 개념은 삶 전체에 걸쳐 형성되며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자아 개념 형성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을 ‘중요한 타인’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형제, 학교에 다닐 때에는 친구나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아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국어 선생님께서로부터 글쓰기를 잘한다고 칭찬받은 학생은 글쓰기를 좋아하게 되고 글쓰기에 자신 있는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 정리하기

■ 대화와 자아 개념

① 자아 개념이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

대화	둘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의사소통 행위
자아 개념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자아 개념은 또다시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② 긍정적 자아 개념과 부정적 자아 개념

긍정적 자아 개념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음.
부정적 자아 개념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음.

③ 자아 개념의 특징

- 자아 개념은 상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성장하면서 자아 개념이 변하기도 함.



자아 개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 형성되며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④ 중요한 타인

- 자아 개념 형성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
-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형제, 학창 시절에는 친구나 선생님 등의 영향을 받아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음.

문제로 확인하기

정답과 해설 2쪽

0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적절한 대화 능력이 필요하다.
- ② 자아 개념은 성장하면서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 ③ 자아 개념은 ‘나’에 대해 스스로 갖는 객관적인 견해이다.
- ④ 대화를 통해 인식한 자신의 모습을 자아 개념이라고 한다.
- ⑤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02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형제, 학교에 다닐 때에는 친구나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아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자아 개념 형성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을 () (이)라고 한다.

03 [A]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학생은 남학생이 하는 말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다.
- ② 남학생의 자아 개념은 이전보다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 ③ 여학생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포용하는 태도로 대화하고 있다.
- ④ 남학생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⑤ 남학생이 중학생 때 만난 친구는 남학생의 자아 개념이 변화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개념 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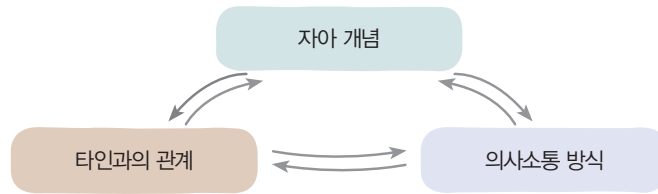
조하리의 창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인식과 타인의 인식을 네 개의 창으로 구분하여 이 네 개의 창을 통해 나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가능할 수 있다.

	내가 아는 영역	내가 모르는 영역
남이 아는 영역	열린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
남이 모르는 영역	숨겨진 영역	미지의 영역

이 이론에 따르면 네 개의 창 크기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며, 살면서 각 창의 크기가 변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열린 영역'이 넓어지면 상대가 아는 '나'가 확대되므로 서로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친밀감이 커지게 된다.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러한 과정을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의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의 순환 과정

①『**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에 비해 상대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 긍정적인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상대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다시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 자아 개념과 긍정적인 대화의 선순환**』



원만한 대화를 위해 자신의 자아 개념을 돌아보고 의사소통 방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자아 개념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 원인을 찾고 부정적 측면을 긍정적 측면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매사 투덜대거나 공격적으로 말하지는 않는지,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말하지는 않는지 등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점검하도록 한다.

어휘 더하기

- 순환(循環):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하여 돌. 또는 그런 과정.
- 전환(轉換)하다: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꾸다.

자기표현

자기표현은 타인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는 것으로, 관계에 따라 자기표현의 정도나 방식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자신을 드러내는 정도에 따라 관계의 깊이가 달라지고, 달라진 관계의 깊이에 따라 다시 자신을 드러내는 정도가 달라진다. 서로 받아들이기에 알맞은 속도로 자기표현을 하는 게 좋다.

2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대화 방식

공감적 듣기

타인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상대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때『**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의 순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화 방식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적절하게 자기표현을 하며, 상대의 입장에 공감하고 반응하며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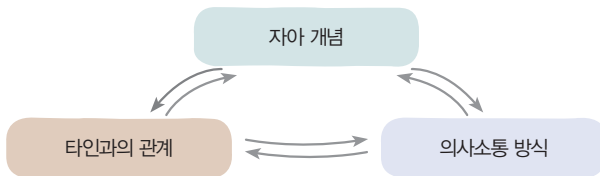
공감적 듣기는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공감적 듣기의 개념

보여 주는 것으로, 대화 시 신뢰와 친밀감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감적 듣기의 방법으로는 집중하기, 격려하기, 반영하기 등이 있다.

집중하기	격려하기	반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는 상대방에게 몰입해서 듣는 방법 • 상대를 향해 마주 보고, 상대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음을 표현함. 예 민준: 어제는 내 기분이 엉망이었어. 지우: 정말? 그랬구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가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법 • 상대의 말에 추임새를 넣거나 상대의 말이 끊긴 경우 차분히 기다림. 예 민준: 나 좋은 일 생겼어. 지우: 우아, 좀 더 이야기해 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가 한 말을 재구성하여 재진술해 주는 방법 •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고 자신의 말로 풀어서 말함. 예 민준: 곧 시험인데 꼭 가야 할까? 지우: 네 말은 시험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의미지?

핵심 정리하기

■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의 순환 과정



■ 공감적 듣기

① 공감적 듣기의 개념

공감적 듣기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
--------	---

② 공감적 듣기의 방법

집중하기	말하는 상대방에게 몰입해서 듣는 방법
격려하기	상대가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법
반영하기	상대가 한 말을 재구성하여 재진술해 주는 방법

똑똑 도움 자료

■ 공감적 듣기의 효능

-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함.
 - 판단을 유보하고 공감의 자세로 집중하고 들을 때 상대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음.
- 화자로 하여금 인간적 가치에 대한 존중감을 느끼게 해 줌.
 - 정보를 교환하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적 듣기의 자세는 말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로서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을 제공함.
- 둘 사이의 정서적 친밀감의 형성에 기여함.
 - 이러한 친밀감은 대인 관계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문제로 확인하기

정답과 해설 2쪽

0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 관계에 있다.
- ② 대화에서 공감적 듣기는 신뢰와 친밀감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자신의 자아 개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④ 타인과 원만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 ⑤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적절하게 자기표현을 해야 한다.

05 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을 남과 자주 비교한다.
- ②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린다.
- ③ 방어적인 태도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 ④ 상대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 ⑤ 어떤 일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06 공감적 듣기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의 말에 추임새를 넣는 것을 '반영하기'라고 한다.
- ② '격려하기'의 예시로는 "그래? 좀 더 말해줘." 등이 있다.
- ③ 말하는 상대방에게 몰입해서 듣는 것을 '격려하기'라고 한다.
- ④ '반영하기'의 예시로는 "아이고, 정말 힘들었겠다." 등이 있다.
- ⑤ 상대의 생각을 자신의 말로 풀어서 말하는 것을 '집중하기'라고 한다.

📌 '나'-전달법

- 문제 상황에서 상대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대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방법
- 사건, 감정, 기대'로 메시지를 구성해 상대에게 전달함.
 - 사건: 자신이 문제로 인식한 상대의 행동이나 상황만을 대상으로 말함.
 - 감정: 사건에 관해 자신의 느낌이나 기분을 진솔하게 표현함.
 - 기대: 자신이 바라는 상대의 행동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함.

비폭력 대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며, 타인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질책이나 비난을 받으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 상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평가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를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비폭력 대화를 하면 상대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폭력적인 말하기로 인한 부정적 효과

비폭력 대화의 개념

비폭력 대화의 기능

개념 더하기

비폭력 대화의 절차

- 관찰한 대로 표현하기: 어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관찰한 대로 표현한다.
- 느낌 말하기: 그 행동을 보았을 때의 느낌을 표현한다. 아픔, 무서움, 기쁨, 즐거움, 짜증 등의 느낌을 표현한다.
- 욕구 표현하기: 자신의 느낌이 내면의 어떤 욕구와 연결되는지를 말한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희망, 기대, 가치관이나 생각 등을 표현한다.
- 부탁하기: 다른 사람이 해 주기를 바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긍정적인 행동을 부탁한다.



가



평가·판단하기 이게 집이야? 쓰레기장이야?
 감정 표현 미숙 너 때문에 정말 피곤해.
 비난하기 넌 치울 줄 몰라?
 명령하기 빨리 청소해!

청소는 내가 형보다 더 많이 하는데.....
 나도 피곤하단 말이야!



나



관찰한 대로 표현하기 물건이 여기저기 놓여 있는 모습을 보니
 느낌 말하기 내 마음이 편하지 않네.
 욕구 표현하기 집이 깨끗하게 정돈되면 좋겠어.
 부탁하기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을까?

관찰한 대로 표현하기 형 말을 듣고 보니 집이 정말 어지럽네.
 느낌 말하기 그런데 지금은 나도 너무 피곤해서
 욕구 표현하기 조금만 더 쉬고
 부탁하기 곧 정리해도 될까?



가에서 형은 폭력적인 말하기를 하고 있으며, 동생은 형과 비교하는 말하기를 함으로써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 반면 나에서 형은 비폭력 대화 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동생 역시 비폭력 대화 방식으로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서로 협력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비폭력 대화 방식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

여휘 더하기

- 질책(叱責): 꾸짖어 나무람.
- 인지(認知)하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알다.

■ 비폭력 대화

① 비폭력 대화의 개념과 효과

비폭력 대화 상대를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



상대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됨.

② 비폭력 대화의 방법

- 상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함.
- ‘관찰한 대로 표현하기 - 느낌 말하기 - 욕구 표현하기 - 부탁하기’의 순서로 표현함.

③ 어질러진 집을 보고 상대와 대화하는 상황 비교

- ㉠에서의 대화 방식: 형은 폭력적인 말하기(평가·판단하기, 감정 표현 미숙, 비난하기, 명령하기)를, 동생은 비교하는 말하기를 하여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함.
- ㉡에서의 대화 방식: 형과 동생 모두 비폭력 대화 방식을 사용하여 서로 협력적으로 대화함.

똑똑 도움 자료

■ ‘너’-전달법과 ‘나’-전달법의 비교

- ‘너’-전달법: 갈등 상황에서 갈등의 원인을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서 찾고 상대를 비난하는 방법
→ 대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갈등을 심화시킴.
예 서진: 넌 왜 혼자 땀짓을 하고 있어? 다른 애들은 다 모둠 활동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할 거면 우리 모둠에서 나가!
희진: 뭐? 너희들은 다 친하잖아! 나한테는 말도 안 걸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아는 척이야? 나는 이 모둠에 있는 게 좋은 줄 알아?
- ‘나’-전달법: 갈등 상황에서 상대를 탓하는 대신 자신이 느낀 감정과 경험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방법
→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문제 해결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음.
예 서진: 희진아, 지금은 다 같이 힘을 합해야 하는 시간인데 너만 다른 걸 하고 있어서 속상해. 너도 다른 친구들처럼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좋겠어.
희진: 응. 너희들끼리 너무 친해 보여서 내가 다가가기 어려워. 서 그랬어. 나도 도울 테니 우리 같이 잘해 보자.

0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람은 누구나 타인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 ② 비폭력 대화는 상대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비폭력 대화는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 ④ 대화 시 질책이나 비난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⑤ 상대의 행동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때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08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문제 상황에서 상대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대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 (이)라고 한다.

09 <보기>의 대화를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형: 이게 집이야? 쓰레기장이야? 너 때문에 정말 피곤해. 넌 치울 줄 몰라? 빨리 청소해!
동생: 청소는 내가 형보다 더 많이 하는데……. 나도 피곤하단 말이야!

- ① 동생은 형과 자신을 비교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형은 동생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폭력적인 말하기를 하고 있다.
- ③ 동생은 형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형과 동생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협력적 대화를 하고 있다.
- ⑤ 형과 동생 모두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비폭력 대화를 하고 있다.

원리를
적용하는

|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의 순환 과정 파악하기 |

01 다음 웹툰을 보고,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의 관계에 관해 생각해 보자.

학습 활동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갖게 된 진수가
방어적인 태도로 의사소통함.

진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지속되자
진수의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개방적인 태도로 의사소통하게 됨.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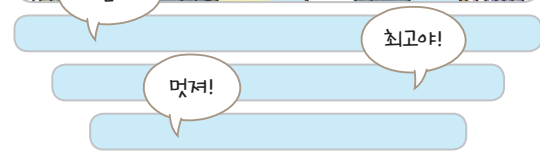
진수의 어린 시절



고등학생이 된 진수



나



- (1) 웹툰에서 ‘진수’가 자기 자신에 관해 인식한 부분을 찾아보고,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자.

| 예시 답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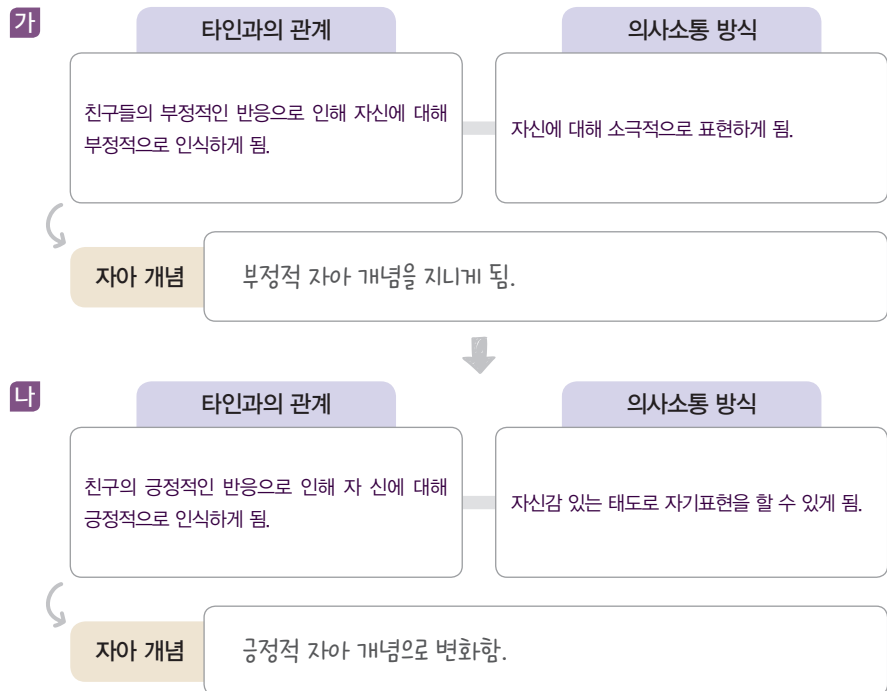
	‘진수’가 자신에 관해 인식한 부분	평가 내용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취향이 이상한가? • 옛날에는 거미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유별나다고 해서 요즘에는 바뀌었어. • 내가 이상한 것 같아서 자신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유별나고 이상한 사람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평가함.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예전부터 거미에 관심이 많아서 거미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 소연이 덕분에 좋아하는 것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 	다른 사람들이 쉽게 관심 갖기 어려운 거미를 좋아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 있는 태도를 갖게 됨.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도 형성되며, 이것이 또다시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진수’의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 (2) ‘진수’가 형성한 타인과의 관계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과 자아 개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리해 보자.

| 예시 답안 |



- (3) 자신도 ‘진수’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고, 그로 인해 어떤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되었는지 말해 보자.

| 예시 답안 | 생략

02 다음 드라마 장면을 보고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방식에 관해 생각해 보자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제재 핵심 정리

신수지 각본, 손예은·박지은 연출,
「하트가 빛나는 순간」

갈래	드라마
제재	디지털 세상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10대 청소년들의 자기 인식
주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깨달음
특징	주인공이 친구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 태도가 변화하는 모습과 서로 배려하지 않는 말하기 방식의 문제를 통해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함.

가 어린 시절 '짜기'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방송을 했던 '나라'는 악성 댓글과 놀림으로 상처를 받고 방송을 그만둔다. 고등학생이 된 '나라'는 반에서 존재감이 없어 고민하고, 친구들은 '나라'에게 인터넷 예능 프로그램인 '고하트' 학교 대표 선발 대회에 출연하기를 권유한다.

서우: 너도 할 수 있어. 미리 겁먹지 마.

나라: (한숨) 난 좀 무서운데. <중략> 사람들이 또 악성 댓글 쓸까 봐.

이전에 있었던 일로 인해 방송 출연을 두려워함.

서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우리가 있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항상 네 편이야. 친구들의 응원과 격려 ①

지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용기 있게 도전해 봐.

친구들의 응원과 격려 ②

나라: 나는 없네요, 그 용기.

지혜: 네가 '짜기' 때 상처 많이 받은 건 아는데, 그래도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친구들의 응원과 격려 ③

나라: 그래. 나도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어. 나도 내 상처를 극복하는 거야!

친구들의 응원과 격려를 듣고 용기를 내게 됨.

서우: 맞아, 맞아, 파이팅!

지혜: 할 수 있다, 빛나라!

나 '고하트' 학교 대표 선발 대회에 출연하기로 한 '나라'는 다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고, '나라'가 어린 시절 '짜기'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점차 인기를 얻는다.

나라: 애들아, 나 어제 방송에서 구독자 380명 늘었다. 대박이지?

지혜: 우와!

서우: 진짜?

나라: 댓글 반응도 엄청 좋았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서우: 나라야, 있잖아, 나…….

나라: 나는 '짜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워할 줄 몰랐어.

서우: 저기, 나라야…….

친구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함.

나라: 다음에 뭐 먹지? 어? 요즘 뭐가 인기 좋아?

서우: 아니, 나라야. ① 너는 왜 내 말은 안 듣고 항상 네 말만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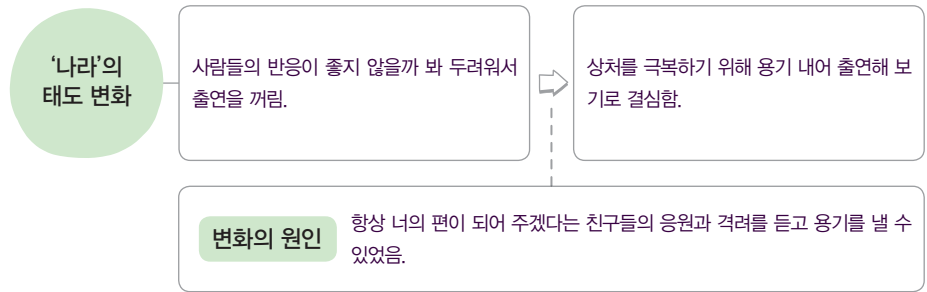
상대를 평가·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을 함.

나라: 어? 내가 언제?

- 신수지 각본, 손예은·박지은 연출, 「하트가 빛나는 순간」

- (1) **가**에서 ‘고하트’ 학교 대표 선발 대회 출연에 관한 ‘나라’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리해 보고, 변화에 영향을 준 원인을 생각해 보자.

| 예시 답안 |



- (2) **나**의 ‘나라’와 ‘서우’의 대화에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각각 적어 보고,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 예시 답안 |

‘나라’의 말하기 방식의 문제점	‘서우’의 말하기 방식의 문제점
다른 친구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함.	서운한 감정을 상대에 대한 비난의 방식으로 표현함.

-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상대를 충분히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상대의 감정도 고려해야 함.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비폭력 대화 방식을 사용하면 상대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3) **나**의 ㉠이 어떤 말하기 방식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고, 상대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화 방식으로 수정해 보자.

| 예시 답안 |

㉠의 말하기 방식	협력적인 관계를 위한 대화 방식으로 수정하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평가·판단하기 <input type="checkbox"/> 감정 표현 미숙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난하기 <input type="checkbox"/> 명령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한 대로 표현하기: 대화 중에 방송 이야기만 주로 하니 • 느낌 말하기: 네가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해. • 욕구 표현하기: 네가 내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면 좋겠어. • 부탁하기: 잠깐 내가 하는 말 좀 들어 줄 수 있을까?

- (4) **가**와 **나**를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 방식과 태도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 예시 답안 |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여 상대의 말을 잘 들어 주고,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표현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03 다음 강연을 읽고, 일상생활의 대화 방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해 보자.

제재 핵심 정리

김경일, 「한국인에게 잘 나타나는 불쾌한 대화 유형」

갈래	강연
제재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대화법
주제	부정적인 대화 습관의 문제와 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특징	불쾌감을 주는 대화법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긍정적인 대화 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함.

‘이 사람과는 정말 대화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불쾌감을 주는 대화법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중략>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은 누가 뭐 말해도 우선 아니라고 상대의 말을 부정하는 말투 합니다. “그날 되게 재밌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되게 신났어.”, “아니 그게 아니고 많이 웃겼지.”라는 대답은 결국 생각하면 질문의 내용과 같은 말이죠. 이전 그냥 말하는 습관이 잘못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주목을 끌려고 하다 보니 이런 나쁜 습관이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니 그게 아니고’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뇌에서 최소한 압정이나 머리핀으로 우리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줍니다. 왜? 내 말이 방금 전에 부정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쉽게 지칩니다. 옆에서 누가 계속해서 찌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말의 방향을 유지하기도 되게 힘들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응대어를 쓰느냐로 대화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아니 그게 아니고’라고 하는 응대어를 사용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맥락이나 어떤 기조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말투가 부정적인 사상, 작품, 학설 따위에 한결같이 흐르는 기본적인 경향이나 방향 람을 피하고 싶은 건 사실 본능이죠.

- △△ 방송, 「심리 읽어드립니다」

(1) 위 강연에서 문제 삼고 있는 대화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 예시 답안 | 습관적으로 상대의 말을 부정하는 말투를 쓰는 대화 방식

(2) 일상생활에서의 대화를 되돌아보고, 바람직하지 않은 대화 방식을 찾아 적어 보자.

| 예시 답안 |

바람직하지 않은 대화 방식

- 예 잘한 점을 칭찬하기보다 잘못된 점만을 지적하는 대화 방식
-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말하는 대화 방식
- 상대의 말을 집중하여 듣지 않고 건성으로 대꾸하는 대화 방식

(3) (2)에서 정리한 대화 방식을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바꾸어 보고, 이러한 변화가 나의 자아 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자.

| 예시 답안 |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	자아 개념에 미치는 영향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경청하여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적 듣기의 방식으로 대화하기	서로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하니 스스로 가치가 있고 존중받는 사람이라고 느껴짐.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공감적 듣기와 비폭력 대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4) 모듈별로 일상생활에서 대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자.

| 예시 답안 |

- 예 하루에 한 번씩 짝과 함께 서로 칭찬하는 말을 한다.
-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할 때 공감적 듣기와 비폭력 대화 방식을 활용하여 대화했는지 서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 매일 자기 전에 자신의 일상생활을 돌아보고 바람직하지 않은 대화 방식이 있었다면 고칠 점을 메모한다.

소단원 특기 사항

▶ 내가 이 단원을 학습하며 흥미를 느낀 내용과 그 이유를 적어 보자.

| 예시 답안 | 자아 개념이 단순히 자신에 대한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과 대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나의 말이 상대의 자아 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평소 언어 습관을 돌아보게 되어 흥미로웠다.

▶ 내가 이 단원에서 활동을 수행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적어 보자.

◎ 잘한 점: | 예시 답안 | 공감적 듣기의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의 말을 경청한 점

◎ 보완해야 할 점: | 예시 답안 |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고치는 것

▶ 앞으로 이 단원과 관련하여 수행해 보고 싶은 활동을 적어 보자.

| 예시 답안 |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대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실천하고, 일지를 적어 나의 자아 개념과 대인 관계의 변화 과정을 정리해 보고 싶다.

1 자아 개념이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

■ 대화

개념	둘 이상의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정보 등을 주고받으며 서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의사소통 행위
자기 인식	타인의 말이나 반응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데, 이를 ①□□□□(이)라고 함.

■ 자아 개념

개념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
형성 과정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이는 또다시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침.

■ 자아 개념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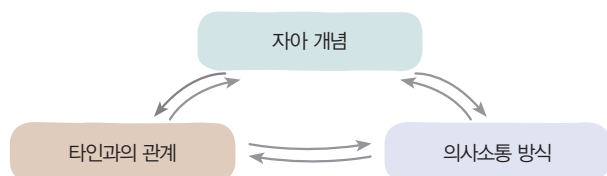
긍정적 자아 개념	적극적이고 ②□□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음.
부정적 자아 개념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음.

■ 자아 개념의 변화

- 자아 개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장하면서 변하기도 함.
- 자아 개념은 삶 전체에 걸쳐 형성되며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침.
- ③□□□□□□ : 자아 개념 형성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
예) 부모와 형제, 친구나 선생님 등

■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의 ④□□ 과정

-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음.
-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상대와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다시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침.



■ 자아 개념의 점검 및 성찰

- 원만한 대화를 위해 자신의 자아 개념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부정적 측면을 긍정적 측면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여 의사소통 방식을 개선해야 함.

2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대화 방식

■ 대화를 통한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

-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의 순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화 방식과 태도를 지녀야 함.
-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적절하게 자기표현을 하며, 상대의 입장에 공감하고 반응하며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⑤□□□ 듣기

개념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
효능	대화 시 신뢰와 친밀감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하기: 말하는 상대에게 몰입해서 듣는 방법 격려하기: 상대가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법 ⑤□□□하기: 상대가 한 말을 재구성하여 재진술해 주는 방법

■ ⑦□□□ 대화

개념	상대를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
효능	상대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됨.
방법	‘관찰한 대로 표현하기 - 느낌 말하기 - 욕구 표현하기 - 부탁하기’의 순서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함.

■ ‘나’-전달법

개념	문제 상황에서 상대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대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방법
방법	‘사건, 감정, 기대’로 메시지를 구성해 상대에게 전달함.

소단원 적중 문제

자아 개념과 협력적인 대화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화는 둘 이상의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정보 등을 주고받으며 서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말한다. 대화 참여자들은 타인의 말이나 반응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자기 인식을 ‘자아 개념’이라고 한다.

자아 개념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이다.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자아 개념은 또다시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다.

나 자아 개념 형성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을 ‘중요한 타인’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형제, 학교에 다닐 때에는 친구나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아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국어 선생님의로부터 글쓰기를 잘한다고 칭찬받은 학생은 글쓰기를 좋아하게 되고 글쓰기에 자신 있는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러한 과정을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의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에 비해 상대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 긍정적인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상대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다시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라 원만한 대화를 위해 자신의 자아 개념을 돌아보고 의사소통 방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 자신의 자아 개념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 원인을 찾고 부정적 측면을 긍정적 측면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매사 투덜대거나 공격적으로 말하지는 않는지,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말하지는 않는지 등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점검하도록 한다.

0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아 개념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 ② 대화와 자아 개념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③ 자아 개념은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 ④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긍정적 자아 개념이 필요하다.
- ⑤ 자아 개념 형성에 영향을 준 모든 사람은 중요한 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 활동 응용

02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수는 어린 시절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여 폐쇄적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다.
- ② 진수는 어린 시절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여 적극적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다.
- ③ 진수는 어린 시절 부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여 소극적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다.
- ④ 진수는 어린 시절 부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여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다.
- ⑤ 진수는 어린 시절 부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여 포용적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다.

서술형

03 윗글을 바탕으로 ㉠의 이유를 서술하시오.

[04~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타인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상대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때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의 순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화 방식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적절하게 자기표현을 하며, 상대의 입장에 공감하고 반응하며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감적 듣기는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대화 시 신뢰와 친밀감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감적 듣기의 방법으로는 집중하기, 격려하기, 반영하기 등이 있다.

나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며, 타인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질책이나 비난을 받으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 상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평가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를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비폭력 대화를 하면 상대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0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대화에서 공감적 듣기를 통해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 ② 대화의 상대에게 자기표현을 많이 할수록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 ③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④ 상대를 평가하거나 질책하면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갈등이 생길 수 있다.
- ⑤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대화 방식으로 공감적 듣기와 비폭력 대화를 들 수 있다.

서술형

05 윗글에 나타난 '비폭력 대화'의 방법을 찾아 서술하시오.

06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소희'의 말하기 방식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소희: 정준아, 어제는 왜 인사도 없이 집에 갔어?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았어.
정준: 미안해. 어제는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
소희: 정말? 그랬구나. 무슨 일 있었어?

- 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② 상대가 한 말을 재구성하여 재진술하고 있다.
- ③ 공감적 듣기 중 집중하기의 방법으로 말하고 있다.
- ④ 상대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대화를 통해 상대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능형

학습 활동 응용

07 나를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나라: 애들아, 나 어제 방송에서 구독자 380명 늘었다. 대박이지?
지혜: 우와!
서우: 진짜?
나라: 댓글 반응도 엄청 좋았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서우: 나라야, 있잖아, 나…….
나라: 나는 '짜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워할 줄 몰랐어.
서우: 저기, 나라야…….
나라: 다음에 뭐 먹지? 어? 요즘 뭐가 인기 좋아?
서우: 아니, 나라야. ㉠너는 왜 내 말은 안 듣고 항상 네 말만 해?
나라: 어? 내가 언제?

- ① 서운한 감정을 상대를 질책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다.
- ③ 상대의 의견을 자신의 주관적 기준으로 일반화하여 평가하고 있다.
- ④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비폭력 대화의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
- ⑤ 상대를 자신과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단원 점검하기



중단원 내용
점검

배운 내용
확인하기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메타버스 학교’를 방문해 보자.



이곳에 입장하려면
다음 문제를 풀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답 0110

- ① 대화는 둘 이상의 참여자가 생각이나 정보를 주고받으며 서로 관계를 맺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
- ② 자아 개념은 '나'의 모습에 관한 객관적인 인식에 해당한다. ○/×
- ③ 자아 개념은 한번 형성되면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나타난다. ○/×
- ④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

* 단서: 문제의 답이 ○인 경우 '0'을, ×인 경우 '1'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곳을 통과하려면
다음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답 321

- | | | |
|-------------------------------|---------------------------|-----------------------|
| •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의 의사소통 경향은? | • 공감적 듣기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비폭력 대화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
| ① 소극적인 태도 | ① 집중하기 | ① 부탁하기 |
| ② 방어적인 태도 | ② 판단하기 | ② 비난하기 |
| ③ 포용적인 태도 | ③ 격려하기 | ③ 명령하기 |



▶ 학교

| 답 | 0110 ① ○ ② × ③ × ④ ○

| 해설 | ② 자아 개념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이다.

③ 자아 개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장하면서 변하기도 한다. 즉 자아 개념은 삶 전체에 걸쳐 형성되며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 교실

| 답 | 321

중단원 실전 문제

1.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대화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이때 대화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화법 유형이다. 따라서 상대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이 단원에서는 자아 개념이 타인과의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타인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대화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나 대화는 둘 이상의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정보 등을 주고받으며 서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말한다. 대화 참여자들은 타인의 말이나 반응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자기 인식을 ‘자아 개념’이라고 한다.

자아 개념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이다.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자아 개념은 또다시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다.

다 자아 개념 형성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을 ‘중요한 타인’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형제, 학교에 다닐 때에는 친구나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아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국어 선생님께서부터 글쓰기를 잘한다고 칭찬받은 학생은 글쓰기를 좋아하게 되고 글쓰기에 자신 있는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라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러한 과정을 ㉠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의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에 비해 상대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 긍정적인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상대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다시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01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대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 ②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 ③ 부정적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④ 어린 시절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 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 ⑤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아 개념을 가져야 하는가?

02 윗글을 읽고 <보기>에서 알 수 있는 자아 개념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아 개념은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
- ② 자아 개념은 상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 ③ 자아 개념은 삶 전체에 걸쳐 고정된 모습을 보인다.
- ④ 자아 개념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⑤ 타인의 자아 개념을 평가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술형

03 윗글을 바탕으로 대화 능력의 필요성을 <조건>에 따라 서술하시오.

조건

- **가**와 **라**의 내용을 토대로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0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아 개념으로 인해 형성된 의사소통 방식은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다시 자아 개념에 영향을 준다.
- ② 어린 시절 타인의 부정적인 말로 인해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갖게 된 경우, 이것은 다른 어떤 경험으로도 변화되지 못한다.
- ③ 자아 개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한다.
- ④ 가까운 관계의 타인과 의사소통할 때는 긍정적 자아 개념이 발현되고, 먼 관계의 타인과 의사소통할 때는 부정적 자아 개념이 발현된다.
- ⑤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은 밀접한 연관을 갖지 않는다.

수능형 학습 활동 응용

05 밑줄을 참고하여 <보기>의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서우: 너도 할 수 있어. 미리 겁먹지 마.
 나라: (한숨) 난 좀 무서운데. <중략> 사람들이 또 악성 댓글 쓸까 봐.
 서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우리가 있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항상 네 편이야.
 지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용기 있게 도전해 봐. / 나라: 나는 없네요, 그 용기.
 지혜: 네가 '짜기' 때 상처 많이 받은 건 아는데, 그래도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나라: 그래. 나도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어. 나도 내 상처를 극복하는 거야!
 서우: 맞아, 맞아, 파이팅! / 지혜: 할 수 있다, 빛나라!

- ① '나라'는 과거에 받은 상처로 인해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갖고 있었다.
- ② '나라'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 ③ '서우'와 '지혜'의 응원과 격려가 '나라'의 태도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 ④ '나라'는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갖게 되었다.
- ⑤ '서우'와 '지혜'는 '나라'의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인이다.

[06~0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타인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상대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때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의 순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화 방식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적절하게 자기표현을 하며, 상대의 입장에 공감하고 반응하며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감적 듣기는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대화 시 신뢰와 친밀감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감적 듣기의 방법으로는 집중하기, 격려하기, 반영하기 등이 있다.

나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며, 타인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질책이나 비난을 받으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 상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평가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를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비폭력 대화를 하면 상대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06 밑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사소통 방식은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군.
- ② 비폭력 대화를 하면 상대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군.
- ③ 상대가 나에게 보여 주는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나의 의사소통 방식이 결정되겠군.
- ④ 타인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평가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야겠군.
- ⑤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상대를 격려하며, 상대의 말을 반영하는 대화 방식을 사용하면 친밀감을 높일 수 있겠군.

07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에게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사람과는 정말 대화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불쾌감을 주는 대화법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중략>

㉠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은 누가 뭘 말해도 우선 아니라고 합니다. “그날 되게 재밌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되게 신났어.”, “아니 그게 아니고 많이 웃겼지.”라는 대답은 결국 생각하면 질문의 내용과 같은 말이지요. 이런 그냥 말하는 습관이 잘못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주목을 끌려고 하다 보니 이런 나쁜 습관이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니 그게 아니고’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뇌에서 최소한 압정이나 머리핀으로 우리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줍니다. 왜? 내 말이 방금 전에 부정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쉽게 지칩니다. 옆에서 누가 계속해서 찌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말의 방향을 유지하기도 되게 힘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응대어를 쓰느냐로 대화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아니 그게 아니고’라고 하는 응대어를 사용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맥락이나 어떤 기조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말투가 부정적인 사람을 피하고 싶은 건 사실 본능이지요.

- ① 상대의 말을 부정하기보다는, 상대의 말에 공감하는 추임새를 넣는 ‘격려하기’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 ② 상대의 말을 부정하기보다는,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고 재진술해 주는 ‘반영하기’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 ③ 상대의 말을 부정하기보다는, 상대의 말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표현하는 ‘집중하기’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 ④ 타인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의 입장에 공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
- ⑤ 원만한 관계를 위해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는 공감적 듣기의 대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08 나를 참고하여 <보기>의 A와 B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A

형

평가판단하기 이거 집이야? 쓰레기장이야?

감정 표현 미숙 너 때문에 정말 피곤해.

비난하기 넌 치을 줄 몰라?

명령하기 빨리 청소해!

동생

청소는 내가 형보다 더 많이 하는데.....

나도 피곤하단 말이야!

B

형

관찰한 대로 표현하기 물건이 여기저기 놓여 있는 모습을 보니

느낌 말하기 내 마음이 편하지 않네.

욕구 표현하기 집이 깨끗하게 정돈되면 좋겠어.

부탁하기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을까?

동생

관찰한 대로 표현하기 형 말을 듣고 보니 집이 정말 어지럽네.

느낌 말하기 그런데 지금은 나도 너무 피곤해서

욕구 표현하기 조금만 더 쉬고

부탁하기 곧 정리해도 될까?

- ① A에서 ‘형’은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는 말하기를 함으로써 동생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
- ② A에서 ‘동생’은 ‘형’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③ B에서 ‘형’은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동생’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있다.
- ④ B에서 ‘동생’은 ‘형’의 행동을 평가하는 폭력적인 말하기를 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상대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협력적인 대화에 실패하고 있다.

0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와 같은 말하기 방식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이를 비폭력 대화의 방식으로 수정하시오.

보기

서우: 저기, 나라야.....
 나라: 다음에 뭐 먹지? 어? 요즘 뭐가 인기 좋아?
 서우: 아니, 나라야. ㉡너는 왜 내 말은 안 듣고 항상 네 말만 해?

- (1) 문제점: _____
- (2) 수정 내용: _____

우리는 대화를 통한 협력적 관계 형성과 표준 발음을 사용하는 바람직한 국어생활에 관해 배웠다.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대단원 통합 활동**을 해 보자.

나의 꿈에 다가서는 대화하기



◆ 20년 후 전문가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짝과 함께 대화 활동을 해 보자.

활동 1

20년 후 전문가가 된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고, 짝과 의논하여 대화 활동을 계획해 보자.



20년 후 전문가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여 대화해 보면 어떨까? 각자 20년 후의 모습을 구체화해서 질문과 답변 내용을 간단히 작성한 뒤 대화해 보자. 그러면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알지 못했던 자신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재미있겠다. 우리가 대화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보는 건 어때? 녹화한 동영상을 다시 보며 정확한 발음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그러면 앞으로도 표준 발음을 사용해서 대화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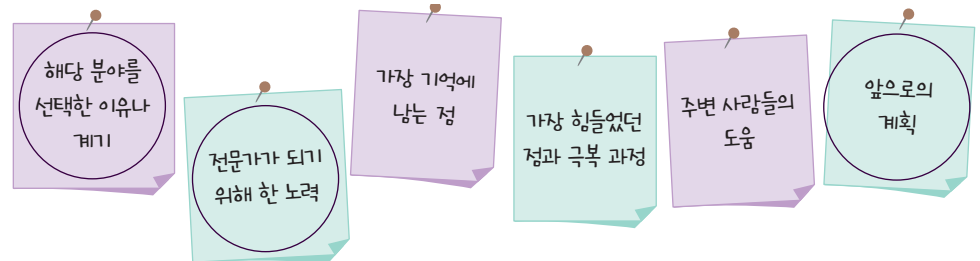


| 예시 답안 | 생략

활동 2

짝과의 대화에서 질문할 내용과 답변할 내용을 선별하여 대화 내용을 작성해 보자.

(1) 전문가가 된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보고, 대화하고 싶은 내용을 선별해 보자.



| 예시 답안 | • 전문가가 된 '나'의 미래 모습: 승무원으로 근무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일 것이다. 특히 안전과 서비스 부분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 대화하고 싶은 내용: 해당 분야를 선택한 이유와 계기,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한 노력, 앞으로의 계획 등

(2) (1)에서 선별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할 내용과 답변할 내용을 정리해 보자.

| 예시 답안 |

질문 내용	답변 내용
어떤 계기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승무원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내향적인 편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 홍보 대사를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양한 사람과 매번 다른 장소에서 열심히 일을 즐기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하다가 비행기에서 안전 업무와 다양한 서비스를 책임지는 승무원을 적합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승무원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영어와 외국어를 꾸준히 공부하였고, 운동을 계속하며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소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밝고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매일 거울을 보며 연습했는데, 이러한 연습이 제 마음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 낼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 승무원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에 응급 처치나 심폐 소생술 같은 교육을 찾아 듣기도 하고 각 상황에서의 대처법에 대해 고민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3) 내가 쓴 질문과 답변 내용을 짚과 바꿔 읽어 보자. 그리고 질문과 답변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최종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정리해 보자.

| 예시 답안 | 생략

활동 3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짚과 대화를 나누어 보고, 활동 내용을 점검해 보자.

(1) 표준 발음을 지키면서 대화를 진행해 보고, 이를 동영상으로 녹화해 보자.



| 예시 답안 | 생략

(2) 동영상으로 녹화한 장면을 보면서 짝과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자.

- 대화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적어 보자.
- | 예시 답안 |

나 자신에 대해 더 알게 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성격이 변하게 되었던 경험과 당시의 생각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고민해 보게 되었다.•
친구가 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소 관심사와 장래희망이 승무원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원래 성격이 내향적이었다는 것과, 성격이 변화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 표준 발음에 맞게 말하기를 수행했는지 점검해 보고 잘못된 발음을 고쳐 보자.
- | 예시 답안 |

잘못 발음한 부분	올바르게 고친 발음
겉에서[겨체서]	[겨테서]
앞날[압날]	[암날]
넓히고[넙피고]	[넙피고]

활동 4

다음 평가 기준에 따라 활동을 평가해 보자. | 예시 답안 | 생략

평가 기준	평가
대화하면서 친구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였는가?	☆☆☆☆☆
적합한 대화 방식을 사용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대화를 하였는가?	☆☆☆☆☆
표준 발음을 사용하여 발음하였는가?	☆☆☆☆☆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였는가?	☆☆☆☆☆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I. 대화와 표준 발음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화는 둘 이상의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정보 등을 주고받으며 서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말한다. 대화 참여자들은 타인의 말이나 반응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자기 인식을 ‘자아 개념’이라고 한다.

자아 개념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이다.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자아 개념은 또다시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다.

나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러한 과정을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의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에 비해 상대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 긍정적인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상대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다시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다 타인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상대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때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의 순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화 방식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적절하게 자기표현을 하며, 상대의 입장에 공감하고 반응하며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감적 듣기는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대화 시 신뢰와 친밀감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며, 타인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질책이나 비난을 받으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 상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평가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를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비폭력 대화를 하면 상대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0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은 서로 독립된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
- ② 자아 개념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타인의 견해로 결정된다.
- ③ 상대의 비난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을 할 때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
- ④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에 따라 적절한 정도로 자기를 표현해야 한다.
- ⑤ 타인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견만을 중시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02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친구: 발표할 때 보니 목소리가 크고 멋지더라.

학생 1: 고마워. 장소에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

학생 2: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난 발표에 자신이 없어.

- ① ‘학생 1’은 ‘친구’의 말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겠군.
- ② ‘학생 2’는 발표를 잘하지 못한다는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겠군.
- ③ ‘학생 1’과 ‘친구’의 대화는 ‘학생 1’의 자아 개념에 영향을 주겠군.
- ④ ‘학생 2’가 가진 자아 개념은 ‘친구’와의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주지 못했군.
- ⑤ ‘학생 1’과 같은 대화 방식은 상대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군.

03 다와 라를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라: 애들아, 나 어제 방송에서 구독자 380명 늘었다.
대박이지? / 지혜: 우와! / 서우: 진짜?
나라: 댓글 반응도 엄청 좋았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서우: 나라야, 있잖아, 나…….
나라: 나는 ‘짜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워할 줄 몰랐어.
서우: 저기, 나라야…….
나라: 다음에 뭐 먹지? 어? 요즘 뭐가 인기 좋아?
서우: 아니, 나라야. 너는 왜 내 말은 안 듣고 항상 네
말만 해?
나라: 어? 내가 언제?

- ① ‘지혜’는 ‘나라’의 말에 적절히 반응하며 격려하는 말 하기를 하고 있다.
- ② ‘서우’의 마지막 말에는 ‘나라’의 행동을 질책하는 말 하기가 나타나 있다.
- ③ ‘나라’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공감적 듣기의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 ④ ‘나라’는 ‘서우’의 지적에 감정이 상해 상대를 비난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 ⑤ ‘서우’와 ‘나라’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술형

04 라를 바탕으로 <보기>에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원만한 관계를 위한 대화로 재구성하여 서술하시오.

보기

동생: 오빠, 이 문제 좀 풀어 줄 수 있어?
오빠: 야, 넌 이것도 모르냐?
동생: 저번 학기에 배운 내용인데, 기억이 잘 안나.
오빠: 너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어떻게 할래? 고
등학생 되어서도 계속 그럴 거야?
동생: 됐어. 이제 오빠한테 안 물어볼 거야!

(1) <보기>의 문제점: _____

(2) 대화의 재구성: _____

05 ㉠과 <보기>를 고려할 때, 정확한 표준 발음으로 말하는 것이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보기

‘표준 발음법’은 발음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막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제정한 발음의 규칙이다.

[06~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나라의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 규정 제2부에 명시되어 있으며, 표준 발음법 제1항에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제1항 표준 발음법은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는 것은 현대 서울말의 현실 발음을 기반으로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뜻이다. 또한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을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발음상의 관습과 일반적인 발음 규칙을 감안한다는 의미이다.

나 국어의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뿐이다. 이 밖의 나머지 자음이 음절 끝에 오면 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발음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접반침의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자음이 두 개 연결된 자음군이 음절의 끝소리에 놓이게 되면 둘 중 하나만 남고 나머지 하나는 탈락한다.

다 받침으로 쓰인 ‘ㅎ(ㄸ, ㅌ)’은 어떤 말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ㅎ(ㄸ, ㅌ)’ 뒤에 ‘ㄱ, ㄷ, ㅅ’이 결합되는 경우, 뒤 음절 첫소리와 결합하여 [크, 툼, ㅌ]으로 발음한다. 받침 ‘ㄱ(ㄷ), ㄷ, ㅂ(ㅍ), ㅅ(ㅆ)’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 [크, 툼, ㅌ]으로 발음하는데 이를 거센소리되기 혹은 격음화라고 한다.

‘ㅎ(ㄸ, ㅌ)’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06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 ② 표준 발음법은 현대 서울말의 현실 발음을 기반으로 정한다.
- ③ ‘개’와 ‘게’를 구별하여 발음하는 것은 국어의 전통성을 따르는 것이다.
- ④ ‘눈’의 장단음을 구분하여 발음하는 것은 국어의 합리성을 따르는 것이다.
- ⑤ 표준 발음법을 발음 규칙이므로 이를 지킬 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07 나 ㉠과 ㉡이 나타나는 예를 바르게 짝 지은 것은?

	㉠	㉡
①	옆[엽]	히웅[히은]
②	섞다[석파]	몫이[목씨]
③	팔죽[판쪽]	넓이[널비]
④	낱고[나:코]	꿀다[곰:파]
⑤	닭달[닥딸]	없다[엽:파]

서술형

08 나를 참고하여 ‘겪다’의 표준 발음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에 따라 서술할 것.)

조건

- 적용되는 발음의 규칙과 음운 변동 현상이 무엇인지 언급할 것.
- 표준 발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쓸 것.

학습 활동 응용

09 다를 참고할 때, <보기>에서 단어의 발음이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보기

- ㄱ. 까망지[까:만치] ㄴ. 넓히다[널피다]
ㄷ. 쌓아[싸아] ㄹ. 많던[만:던]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학습 활동 응용

10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A]

[B]

- ① [A]의 ‘갑기’는 받침 ‘ㅁ’이 ‘ㄱ’ 앞에 ‘ㅇ’으로 교체되었으므로 [강:기]가 적절한 발음이다.
- ② [A]의 ‘갑이’는 [가비]가 아니라 겹받침의 뒤 자음을 연음하여 [갑시]로 발음해야 한다.
- ③ [B]의 ‘굳직한’은 [굴찌간]이 아니라 겹받침의 뒤 자음을 선택하여 [국직한]으로 발음해야 한다.
- ④ [B]의 ‘굳직한’은 [굴찌간]이 아니라 받침 ‘ㄱ’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하므로 [굴지간]으로 발음해야 한다.
- ⑤ [B]의 ‘말더니’은 [말떠니]가 아니라 겹받침의 뒤 자음을 선택하여 [막떠니]로 발음해야 한다.

통합 문제

11 윗글과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A: 그동안 감사했어요. 여기 [다기]예요. 저희 동네 유명한 가게에서 샀어요.
B: 어이쿠, 뭘요. 이런 걸 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가족이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데 잘됐네요.
A: 아, 유명한 치킨 집에서 치킨을 사 왔는데요.
B: 앗, 그렇군요. 전 차를 달여 마실 때 쓰는 ‘다기’를 주시는 줄 알았어요. ‘닭을[달글]’ 사 오셨군요. 하하.

- ① 표준 발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 ②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정확하게 발음할 때 상호 간의 오해를 막을 수 있다.
- ③ 사람마다 다르게 발음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 ④ 표준 발음법에 따라 한 가지로 발음하는 것보다 다양한 발음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
- ⑤ 의사소통의 맥락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발음함으로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대단원 통합 지문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아 개념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이다.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자아 개념은 또다시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으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다.

나 받침 ‘ㄷ, 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다 받침 ‘ㄱ, ㄷ, ㅂ’ 뒤에 비음인 ‘ㄴ, ㅁ’이 올 때 앞선 받침인 ‘ㄱ, ㄷ, ㅂ’이 뒤에 오는 비음의 조음 방식에 동화되어 동일한 조음 위치의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한다.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비음화가 일어난다.

라 우리는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을 뿐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나간다. 잘못된 발음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어렵게 하며, 타인과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표준 발음을 익혀 상황에 맞는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1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타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아 개념이 형성될 수 있다.
- ②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 ③ 의사소통 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발음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 ④ 발음을 할 때 앞뒤의 음운에 영향을 받아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 ⑤ 의사소통 능력은 정보 전달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에도 필요하다.

수능형

13 **나**와 **다**를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 솟이[수치] ㉡ 같이[가치] ㉢ 협력[협녁]
㉣ 잡는[잠는] ㉤ 곤란[꼴란]

- ① ㉠: ‘굳이[구지]’에서처럼 모음 ‘ㅣ’ 앞에서 받침의 소리가 구개음으로 교체된 음운 변동의 예이다.
- ② ㉡: ‘쌍지[싸치]’에서처럼 모음 ‘ㅣ’ 앞에서 받침의 소리가 구개음으로 교체된 음운 변동의 예이다.
- ③ ㉢: ‘독립[동닙]’에서처럼 음운의 교체 현상이 두 번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예이다.
- ④ ㉣: ‘밟다[밥:따]’에서처럼 두 개의 음운 중 하나가 탈락하는 음운 변동의 예이다.
- ⑤ ㉤: ‘국민[궁민]’에서처럼 앞말의 받침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교체된 음운 변동의 예이다.

14 **다**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앓는[알른] ② 닳는[당는] ③ 범만[범만]
④ 읊는[음는] ⑤ 집 만들다[집만들다]

통합 문제

1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아 개념은 의사소통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② 타인과의 의사소통은 자아 개념 형성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표준 발음으로 정확하게 말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 ③ 자아 개념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항상 신경 쓰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④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잘못된 발음을 한다면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 ⑤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으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과만 의사소통해야 한다.



문제의 의도, 정답 해설과 오답 풀이를 제공하는

정답과 해설



대화와 표준 발음

1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대화

자아 개념과 협력적인 대화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12~17쪽

01. ③ 02. 중요한 타인 03. ⑤ 04. ③ 05. ④ 06. ②
07. ⑤ 08. '나'-전달법 09. ②

- 01 자아 개념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이다.
- 02 자아 개념 형성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을 ‘중요한 타인’이라고 한다.
- 03 남학생은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소심하고 말이 없었다가 중학교 때 만난 친구의 영향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중학교 때 만난 친구의 영향으로 남학생의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04 원만한 대화를 하기 위해 자신의 자아 개념을 돌아보고 의사소통 방식을 점검하여 부정적 측면을 긍정적 측면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05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 긍정적인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06 ‘격려하기’는 상대가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법으로서, 상대의 말에 추임새를 넣거나 상대의 말이 끊긴 경우 차분히 기다리는 것 등이 있다.
| 오답 풀이 | ① 상대의 말에 추임새를 넣는 것은 ‘격려하기’에 해당한다.
③ 상대에게 몰입해서 듣는 것은 ‘집중하기’에 해당한다.
④ ‘반영하기’는 상대가 한 말을 재구성하여 재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⑤ 상대의 생각을 자신의 말로 풀어서 말하는 것은 ‘반영하기’에 해당한다.
- 07 상대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평가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08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대화 방식의 하나로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나’-전달법이라고 한다.
- 09 형은 집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동생에게 폭력적인 말하기를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동생은 형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
③ 동생은 형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④ 형은 폭력적인 말하기를 하고 있으며, 동생은 비교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으므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협력적 대화라고 볼 수 없다.
⑤ 형의 말하기는 상대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폭력적인 말하기에 해당하고, 동생의 말하기는 비교하는 말하기에 해당하므로 둘 다 비폭력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단원 적중 문제

본문 25~26쪽

01. ⑤ 02. ③ 03. 예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04. ② 05.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한다. 06. ② 07. ①

- 01 나에 따르면, 자아 개념 형성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을 ‘중요한 타인’이라고 한다. 성장하며 접하는 다양한 사람이 자아 개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중 부모, 형제, 친구처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중요한 타인’이라고 일컫는다.
- 02 진수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부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고등학생이 된 진수가 소극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갖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진수는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받은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④, ⑤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다.